ISSN 2586-1816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ISSN 2586-4440
Vol. 8. No. 6, pp. 293-303, 2018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6.293

취업 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조옥선[1], 백진아[2*]
[1]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2]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n Depression of Employ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Couple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uk-Sun Cho[1], Jina Paik[2*]
[1]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ion, Hansei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 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부의사소통 및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F) 4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미혼 성인자녀와 베이비부머 남편을 둔 취업 기혼여성 586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구조방정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 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은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사소통은 취업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우울감 사이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는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우울감 사이에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여성의 우울감을 낮추고,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취업 여성,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우울감, 부부의사소통, 일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n depression of employed wome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purpose, the data from the fourth year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on 586 employed women with baby boomer husbands and unmarried adult children were analyzed by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The fou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f employed wom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depression, while it had a negative effect on couple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Second, couple communication of employed women influenced negatively on their depression and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depression. Third, the effect of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on depression of employed women was partly mediated by their job satisfaction. Further, the practical programs to enhance couple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as well to reduce depression, were presented.

Key Words : Employed Women, Burden of Caring Unmarried adult Children, Depression, Couple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This article is revised of doctoral dissertation of Ouk-Sun Cho(2016).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October 15, 2018 Revised November 21,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최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가 및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가족내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경제적 책임을 안고 있는 취업여성의 어려움이 드러나면서 중년 취업 기혼여성의 정신건강과 우울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1], 여성의 경우 우울증의 평생유병률이 9.1%로 나타나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49.6%가 기분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우울증 진료인원에서 40대 이상 여성 우울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3%를 차지하여 상당수의 중년여성이 심리적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2], 중년 여성의 우울감은 이후 노년기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우울감은 미혼 여성이나 남성, 혹은 기혼남성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의 정신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따라서 기혼여성의 우울은 단순히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녕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혹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과정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중년층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가 노인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과거에는 가부장적 전통에 따라 기혼여성이 직업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산업화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중년기를 맞은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로서 느끼는 압박과 본인의 역할수행에서 오는 좌절감 및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족 양립이라는 이중부담에 따른 과부하의 역할요구에 따라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6].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미혼율이 증가하면서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곁을 떠나지 않는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감은 부모의존형 가족이라는 가족형태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모의존형 가족이란 자립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집에서 거주하며 구직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혼 성인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한다[7]. 또한 취직을 하였지만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의존하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미혼의 성인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감은 중년 이후 자녀양육의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기대하는 여성들에게 "원치 않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책임감을 가중시킨다. 부모에게 정서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의식주를 의존하는 미혼 성인자녀에게 부모의 돌봄이 제공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문제 등의 돌봄 부담감은 결과적으로 특정시기에 국한됐던 여성의 돌봄 책임을 확대시켜 감정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혼 성인자녀를 돌보는 취업 기혼여성의 우울감은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지는 젠더 역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 전통적 가족 요인인 자녀돌봄과 가사노동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의존적인 자녀와 자기 직업에 대한 긴장이 더해졌을 경우, 기혼 여성의 우울감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9,10].

한편, 취업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감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배우자와의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부의사소통은 부부 상호 간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통해 공통된 의미를 만들고 수용하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서[11], 부부간의 친밀성과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12,13]에 의하면,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경제적인 안정추구 정도가 증가할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독립을 해야 할 성인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감은 아직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책임과는 다른 "추가적인" 것으로, 성인기 자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데서 오는 좌절감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켜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취업여성의 역

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년기 부부가 서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의사소통 유형이 비효율적일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여성이 배우자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하며 부부생활만족도 등이 높으면 갈등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 우울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취업여성이 미혼 성인자녀 돌봄에서 받는 부담감이 크더라도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서로간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며, 편한 부부관계를 유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될 수 있다[15,16]. 이처럼 부부의사소통은 취업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 돌봄으로 인해 받는 부담감을 완화시키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성의 우울감은 직장에서 경험하는 일 만족도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 일 만족도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의 경험, 보상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17]를 의미한다. 취업 여성에게 있어 자녀 돌봄의 문제는 자신의 근무현장에서 이직을 고려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개인의 일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8,19]. 일반적으로 취업 기혼여성은 이전 세대 보다 학력이 향상되어 양질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단절되어 가사와 자녀를 돌보다 40대에 재취업하거나[20],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남편의 조기퇴직에 따라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준비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엄격한 성역할의 분리체계가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은 취업으로 인한 가족/일의 병행이라는 이중노동과 역할 과다로 인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심리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긴장과 불만이 누적되면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이 여성의 우울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9]. 뿐만 아니라 취업 기혼여성은 직장의 근로환경, 승진, 고용의 안전성 및 임금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로 인해 좌절과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체계인 사내 복지제도의 보호요인을 통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거나[6,21],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자율성과 복리후생제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취업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를 고취시키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는 우울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2].

지금까지 취업여성의 우울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녀돌봄 부담감의 문제를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축소시켜 분석하였으며 특히 현재 가족연구의 새로운 관심주제인 성인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취업여성의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우울 사이에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최근 성년 자녀들의 부모 의존도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취업 기혼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취업여성의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이 취업 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의사소통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셋째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이 취업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전국 규모의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가구원을 표본으로 가구용, 일자리용, 여성개인용의 설문지로 분류되어 있다. 특별히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상과 이에 따라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취업 여성의 정신건강상태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4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남편을 둔 취업 기혼여성이면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인 성인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총 586명이다.

2.2 측정도구

2.2.1 우울감

우울감이란 기분장애에 포함되는 한 부분으로서 집중력 저하와 의욕상실, 위축, 외로움, 두려움, 무력감, 불면증 등을 나타내는 감정과 정서 상태를 뜻한다[23]. 본 연구의 우울감 척도는 한국가족패널에서 사용한 CES-D를 활용하였다.

우울감의 질문 문항은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음'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타당도의 요인부하량이 .4이하인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비교적 잘 지냈다' 등을 제외한 총 8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분석 시 역변환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18로 나타났다.

2.2.2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돌봄부담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나 심리적 고통의 직접적인 표출을 의미한다[24].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부모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정서적인 부분을 의존하는 미혼 성인자녀에게 부모의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 등을 말한다.

성인자녀 돌봄부담감 척도의 질문 문항은 '자녀(들)의 학비 문제' 등의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타당도를 묻는 요인부하량이 0.4이하인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 문제', '자녀(들)의 이성친구나 결혼문제' 등을 제외한 총 5문항이 분석에 적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전혀 걱정하지 않음'부터 4점 '매우 걱정하는 편이다'로 설계되어 있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에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16이다.

2.2.3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이란 부부 간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수용 가능한 행동과 태도 및 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1]. 부부의사소통 척도의 질문 문항은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함',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에 만족 함', '나는 남편을 신뢰 함'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점 '정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 처리 후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88로 나타났다.

2.2.4 일 만족도

일 만족은 직무만족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며, 개인의 직무환경이나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상태[25]이자, 구성원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6]. 일 만족도의 질문 문항은 '임금 또는 소득수준',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성과에 대한 인정'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타당도가 .4이하인 '고용의 안정성'을 제외한 총 8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 구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5점 '매우 불만족'부터 1점 '매우 만족'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역코딩 처리한 후 분석하였으며,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96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여성 우울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매개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Amos 21.0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여성의 우울감과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일 만족도, 부부의사소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성 우울감,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일 만족도, 부부의사소통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였다. 넷째, 간접(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Bootstra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취업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47세 이하' 17.9%(105명)가 가장 적고 '48세~50세'인 경우가 32.8%(192명)로 가장 많게 분포되어 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ge	under 47 years	105	17.9
	48 years~50 years	192	32.8
	51 years~53 years	179	30.5
	more than 54 years	110	18.8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or below	194	33.1
	High school graduate	297	50.7
	Junior college or higher	95	16.2
Job	official(government employee)/ soldiers/ teachers	96	16.4
	service/sales job	252	43.0
	Agriculture/ Fishing/ Forestry	97	16.6
	part-time/ day labor/ Technical	139	23.8
Religion	yes	380	64.8
	no	206	35.2
Health status	bad	42	7.2
	normal	247	42.2
	good	297	50.1
Economic support of adult children	yes	336	57.3
	no	249	42.5
Number of unmarried adult children	1	174	29.7
	2	357	60.9
	more than 3 children	55	9.4

연령은 주로 50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16.2%(95명), '중졸이하' 33.1%(194명), '고졸'이 50.7%(2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보면, '전문/사무직'이 16.4%(96명)로 가장 적고 '서비스/판매직'이 43.0%(25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종교는 없는 경우가 35.2%(206명)이고 있는 경우는 64.8%(380명)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현재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나쁜 편이다'가 7.2%(42명)로 제일 낮고 '좋은 편이다'는 50.1%(2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성인자녀의 경제적 돌봄 유무를 살펴보면, '아니오' 42.5%(249명)이고 '예' 가 57.3%(336명)로 나타났으며, 미혼성인 자녀수는 '3명이상 자녀' 9.4%(55명)이고 '1명 자녀' 29.7%(174명), '2명 자녀'가 60.9%(357명)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취업 여성들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일 만족도, 부부의사소통, 우울감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19(sd=.66), 일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04(sd=.57), 부부의사소통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88(sd=.51), 우울감 요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차는 1.86(sd=.51)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작았으며, 첨도는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586)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00	4.00	2.19	.66	.42	.36
2)	1.00	5.00	3.04	.57	.30	1.16
3)	1.00	4.00	2.88	.51	.67	1.84
4)	1.00	3.88	1.86	.51	-.08	-.02

1)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2) Job satisfaction, 3) Couple communication, 4) Depression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행렬은 Table 3과 같으며, 분석결과에 사용된 변수들은 유의수준 .05 미만인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우울감($r=.24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일 만족

도(r=-.125, p<.01) 및 부부의사소통(r=-.193,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사소통은 우울감(r=-.258, p<.01), 일 만족도(r=-.185,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울감은 일 만족도(r=-.152,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193**	1		
3)	-.125**	-.185**	1	
4)	.240**	-.258**	-.152**	1

**p<.01, 1)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2) Couple communication, 3) Job satisfaction, 4) Depression

3.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3.4.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석하기 전에 잠재변수와 잠재변수의 수, 그에 따른 측정변수들이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다[27]. 취업여성의 우울감,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일 만족도, 부부의사소통을 포함한 측정변수들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카이제곱 통계량(x^2=1510.92), 자유도(df=371), 유의확률(p=.000)과 다른 적합도 지수로 SRMR=.053, CFI=.864, RMSEA=.072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상향시키기 위해 수렴타당도(ß<0.5)와 설명력 값이 낮은 변수를 차례로 제거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타당도와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최종측정모형을 설정하게 되었다. 수정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963.657, df=246, p=.000, SRMR=.045, CFI=.903, RMSEA=.071 등의 값을 보여 모형이 적절한 것을 볼 수 있다.

3.4.2 구조모형 분석

취업 기혼여성을 표본으로 성인 미혼자녀 돌봄 부담감이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조모형에서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만한 적정수준을 갖고 있어도 변인 간 경로계수의 유의도가 .05미만에서 확률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확률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취업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확률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ß=-.191, t=-3.732, p=.000). 이는 중년 여성이 겪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인자녀 돌봄에 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노출될수록 부부간 대화와 신뢰 및 부부관계만족도 영역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미혼 성인자녀의 지속적인 돌봄이 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와 취업여성의 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25, t=-2.671, p<.01). 부모부터 독립되어야 할 성인기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취업 여성은 일-가정 양립과 이중노동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돌봄 부담감은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률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ß=.187, t=3.905, p=.000).

즉 취업 기혼여성은 성년이 된 자녀문제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될수록 모든 일이 귀찮게 여겨지고 힘들게 느껴져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부의사소통은 취업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ß=-.200, t=-4.127, p=.000).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만할수록, 취업 기혼여성은 외로움과 두려움 및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무기력함 등이 줄어들고 우울감 정도가 감소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취업 기혼여성의 근로환경, 담당업무의 내용, 복리후생,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만족할수록 우울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ß=-.094, t=-2.138, p<.05). 즉 복리후생, 근로시간, 의사소통, 근로환경, 성과에 대한 인정, 개인의 발전가능성, 고용의 안전성 등이 직장 내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itial model	1510.921	371	.00	.053	.864	.072
Modified model	963.657	246	.00	.045	.903	.071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E.	C.R.
Couple communication	<-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169	-.191***	.045	-3.732
Job satisfaction	<-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144	-.125**	.054	-2.671
Depression	<-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215	.187***	.055	3.905
Depression	<-	Couple communication	-.260	-.200***	.063	-4.127
Depression	<-	Job satisfaction	-.094	-.094*	.044	-2.138

*p<.05, **p<.01, ***p<.001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	Couple communication	-.191	-.191***	
Couple communication	→	Depression	-.200	-.200***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 Couple communication	→ Depression	.225	.187***	.038**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	Job satisfaction	-.125	-.125**	
Job satisfaction	→	Depression	-.094	-.094*	
Burden of caring adult children	→ Job satisfaction	→ Depression	.199	.187***	.01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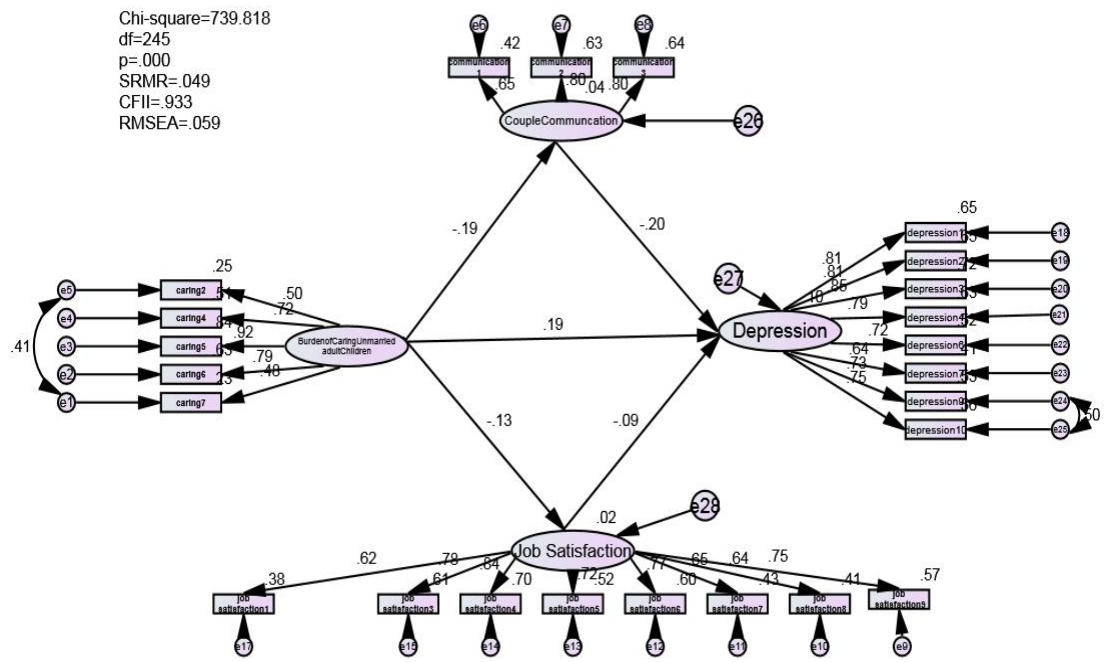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구조모형 결과와 추정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Fig.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취업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 일 만족도, 부부 의사소통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밑바탕으로 선행변인들의 우울감에 대한 총 효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모형의 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으로 하였으며,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부부 의사소통에 직접효과(ß=-.191)가 있고, 부부 의사소통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직접효과(ß=-.200)가 있다.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취업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총효과(ß=.225)와 간접효과(ß=.038, p<.01) 및 직접효과(ß=.187)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취업 기혼여성의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일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ß=-.125)가 있으며, 취업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는 우울감에 직접효과(ß=-.094)를 보여준다.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총 효과(ß=.199)와 간접효과(ß=.012, p<.01) 및 직접효과(ß=.187)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통해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취업 여성의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이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 기혼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일 만족도와 부부 의사소통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에 대한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취업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담감을 느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ß=-.191, t=-3.732, p=.000).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이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 안정, 정서적 관계, 자녀 돌봄 중 어느 곳에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달라지며[12], 취업 기혼여성이 미혼 성인자녀 돌봄에 초점을 둔 경우, 배우자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다. 성인자녀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배우자세대는 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의 도구적 역할만 담당하며, 자녀 및 부부 관계를 소홀히 했던 가부장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성에게 자녀 돌봄을 전적으로 맡김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생활습관 및 진학 등에 무관심하게 되고, 자연스레 부부간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을 감소하기 위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원활한 부부의 사소통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부부교육이나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지원 내용들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부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 취업 기혼여성의 가족적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자녀의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심적 부담감은 취업여성의 일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ß=-.125, t=-2.671, p<.01). 이는 기혼여성 공무원이 자녀 돌봄에서 갈등을 경험할수록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28]와 자녀 돌봄의 부담감이 직장내 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29], 이직을 고려하게끔 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19]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은 취업여성의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률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ß=.187, t=3.905, p=.000). 이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자녀와의 관계 포함)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30], 취업 기혼여성의 자녀관계 스트레스가 우울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31]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 기혼여성이 자녀 돌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수록 내재되어 있는 우울성향이 수면위로 드러나 더욱 우울감 속에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생애발달주기 과정에서 볼 때, 자녀를 독립시키고 자아분화 과정을 겪으며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자녀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인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울감이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자녀 돌봄의 부담은 주 양육자인 기혼여성들의 자아정체감에 있어 혼란을 가져와 심리적인 불안정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을 되찾기 위해 지나 온 일생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미혼 성인자녀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성,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향상 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미취업자들에게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둘째, 부부의사소통은 취업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ß=-.200, t=-4.127, p=.000),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취업 여성의 우울감 사이에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의사소통과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밝힌 Park & Jeong[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부부간에 서로 잘 이해하고 상호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미혼자녀 돌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의 우울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부부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배우자 신뢰감을 높여 부부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요청된다[32].

셋째, 소득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취업여성의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며(ß=-.094, t=-2.138, p<.05), 일 만족도는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과 취업여성의 우울감 사이에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 업무환경, 긍정적 인간관계, 적절한 보상으로 인한 일 만족도가 우울감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Um & Kim[33]의 연구와 서비스직 노동자의 우울을 분석한 Kim et al.[3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따라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의 우선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에서 취업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우울감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부담감도 직장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인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공평한 승진기회, 적절한 임금, 근무환경, 고용에 대한 안정성 보장 및 직장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우울감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우울감을 낮추고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직장 내 상담실 운영과 심리프로그램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업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많은 물적 지원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족의 이해와 역할에 대한 가족기능의 변화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손자녀나 미혼 성년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돌봄 부담은 이전에 돌봄의 대상자였던 부모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정체성 혼란과도 이어져 가족연구의 새로운 주제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35].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만 20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미혼 성인자녀를 둔 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부담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성인자녀는 발달단계 과업수행으로 부모로부터 독립과 취업 및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기이다. 또한 기혼여성은 중년기를 맞아 자녀로부터 분리되고 자아분화와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고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자녀의 발달과업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인 부분에서 자녀 돌봄의 역할수행을 요구받게 되고, 자신의 발전을 이행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가족생활발달주기 측면에서 보면, 가족확대기가 길어지고 축소기가 짧아짐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노년기 황혼이혼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 성인자녀의 돌봄 부담감이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이 취업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부부의사소통과 일 만족도의 보호요인을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가족·직장요인에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수가 온전히 고려되지 못해 새로운 연구방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각 변수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취업여성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전체 여성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혼 성인자녀 돌봄 부담감에 있어 전업주부 뿐 아니라 취업 한부모 여성, 남성의 경우도 포함시켜 비교 설명하고, 그에 따라 우울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범주화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 만족도가 소득이나 학력, 근무연한, 숙련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에 따른 보다 심층적인 분석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2). http://www.mohw.go.kr

[2]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4). http://www.hira.or.kr

[3] J. Y. Lee & M. K. Jang. (2008).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Rol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339-352.

[4] S. I. Kang & H. J. Jeon. (2013). Influence Factors of Married Women's Depression Change - Focused on Householder and Poverty, Health and Social Science 33, 161-188.

[5] C. D. Gjesfjeld, C. G. Greeno & K. H. Kim. (2010). Econo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s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Occurring?, Social Work Research, 34(3), 135-143.

[6] J. S. Lee & W. S. Choi. (2011). A Study on Path of Depression of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4), 389-412.

[7] Y. B. Lee, S. J. Kim, Y. W. Lee & H. J. Choi. (2011). The Influence of Self Differentiation and Coresidence with Unmarried Adult-Child on Parent's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9(2), 137-168.

[8] I. S. Cho, S. H. Ahn, S. Y. Kim, Y. S. Park, H. W. Kim, S. O. Lee, S. H. Lee & C. W. Chung. (2012). Depression of Married and Employed Women Based on Social-Role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4), 496-507.

[9] J. Y. Kim, S. C. Cjhoi, B. R. Choi & H, Y, Kim. (2009). The Impact Married Worker's Job Stress and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0), 51-61.

[10] E. Lahelma, S. Arber, K. Kivela & E. Roos. (2002). Multiple Roles and Health Among British and Finnish Women: Theinfluence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4(2), 727-740.

[11] K. H. Edward. (1980).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Cognitive Homeostasis.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Washington.

[12] E. Chjung. (2004). A Study on Couple Communication of the Married Women in the City Family and Family Therapy 12(2): 173-199.

[13] E. J. Jung & M. S. Le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iculty of Nurturing and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485-510.

[14] O. H. Jo.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s, Coping Behavior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Working Wives.

[15] K. A. Park & H. S. Jeong. (2011). The Effect of Marital Intimacy and Commun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9(2), 59-84.

[16] S. J. Kim & S. Y. Kim.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Intimacy, Depression, and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3), 176-187.

[17] G. W. Cordner & K. E. Scarborough. (2010). Connecting Police Intelligence with Military and National Untelligence, In K. Logan (ed). Homeland Security and Untelligence. New York, NY: Praeger/ABC-CLIO, pp. 174-210.

[18] S. Y. Choi. (2000).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 - Family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19] S. C. Choi, J. M. Woo, Y. M. Yoon, S. A. Kim & W. S. Park. (2006).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s on Job Satisfaction: Development of Family-Friendly Corporate Welfare Syste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7, 143-171.

[20] G. H. Han & S. E. Choi. (2013). Korean Female Baby Boomer's Work Life and the Marital Quality: A Focus on the Retirement Process and the Job Classification, Family and Culture 25(1), 1-38.

[21] S. A. Kim, K. A. Nam & H. I. Cheong. (2006) Original Articles : Depression in Married Employ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2), 179-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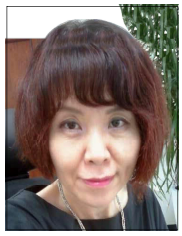
[22] L. T. Thomas & D. C. Ganster, (1995).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1), 6-15.
[23] L. G. Reynolds & J. Shister. (1949). Job Horizons: A Study of Job Satisfaction and Labor Mobil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
[24] J. S. Greenberg, M. M. Seltzer & J. R. Greenly. (1993). Aging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Gratification and Frustrations of Later-Lif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33(4), 542-550.
[25] E. A. Lock.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pp. 1297-1343). Chicago: Rand McNally.
[26] R. M. Steers & L. W. Porter. (1975).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NY, Mcgraw Hill, 234.
[27] J. F. Woo. (2013).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annarae Publishing Co.
[28] J. Y. Chang & H. S. Kim. (2003).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Job Attitude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9(1), 23-42.
[29] E. H. Seo & M. S. Lee. (2011).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Workplace Child-Care on the Parenting Stress,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Pare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1), 41-65.
[30] M. R. Ki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ive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669-682.
[31] D. M. Kim.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Working Women and Full Time Housewives, Korean Education Inquiry, 32(2), 113-131.
[32] J. B. Cho.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Economic Stressor on Ways of Dealing with Problems among Married Couples -Focusing 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ource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153-174.
[33] T. S. Um & H. S. Kim. (2013). Impac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Servant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34, 135-158.
[34] S. Y. Kim, S. J. Chang, H. R. Kim & J. H. Roh.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ndustrial Service Employee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4(3), 227-235.
[35] J. Paik. (2013). Experiences of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Familial Response to the Absence of Care Work in Family, Discourse 201, 16(3), 67-93.

조 옥 선(Cho, Ok-Sun) [정회원]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2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장애
・E-Mail : sun16070@naver.com

백 진 아(Paik, Jina) [정회원]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E-Mail : jpaik1@hanafos.com